

한국 특수교육의 현주소를 말하다 장애를 넘어, 넘도록 돕는 자로

황유정

나의 삶의 여정에는 참 좋은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장애로 늘 어머니와 함께 등교해 하루 종일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았던 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께서는 혼자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학교에 오지 않으셨고 나는 어머니의 도움없이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며 나는 일반 중학교 대신 지체장애 특수학교로 진학했습니다. 특수학교에 입학해 만났던 선생님들은 내게 책을 통해 그리고 체험 학습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알려 주셨고, 또한 그 다양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한과 한계가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일반 여자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교실을 오르내리며 공부해야 했지만, 다른 친구들처럼 체육 수행 평가를 받을 수 없었던 내게 선생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광진구 워커힐에 있는 정립회관에 가서 사격, 활쏘기, 수영 등으로 체육 수행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해주셨던 선생님이로 인해 나는 내 안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너는 글 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권사님.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권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었던 것인지 나는 국어 국문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꾀본 적이 없지만 교직을 이수하고 중등국어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뜻하지 않게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아 장애아동 조기교육실에서

장애아동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름방학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끝내며 나는 특수교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게 있던 중등교사자격증으로 특수교육대학원에 들어가 특수교사 자격증을 받았고 졸업을 하며 1998년, 동방학교에 왔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장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동방학교에서 신우회를 만들고 믿음의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 찬양하며 아이들과 동료 교사들 그리고 학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여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일이면 섬기는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이것이 나를 특수교사로 부르신 부름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음 한쪽에서 '이것이 전부인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기독교학교연구회(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우리가 꿈꾸는 기독교 학교』(예영커뮤니케이션)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우회에서 말씀을 전해 주시던 목사님의 소개로 2000년 평택송탄지역 기독교사모임 창립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모임에 참석하여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적으로 교과 가르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모태 신앙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3학년부턴 교회를 다녔고 대학교 때 기독교 관련 동아리 활동을 했던 내게 낯설기만 했던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알기 위해 평택송탄 기독교사모임에서 추천받은 알버트 월터스의 『창조 타락 구

속(IVP), 양승훈 교수의 『기독교적 세계관』(CUP)을 읽었습니다. 이 책들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가 되는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인간, 죽음, 윤리 등등 여러 영역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깨닫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새로운 영역들을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나의 세계관 책 읽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미션 스쿨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기독교적으로 교과를 가르치기'는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반 브루멜른의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IVP)와 『기독교적 교육과정 디딤돌』(IVP), 알버트 그린의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CUP), 존 반 다이크의 『가르침은 예술이다』 등의 책을 통해,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참석했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드림교사연수원에서 실시했던 1,2차 연수를 통해 비로소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사가 해야 할 기독교적 수업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르쳐야 할 단원을 계획하며 아래의 질문(『기독교적 교육과정 디딤돌』 p.65)을 작성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탐구하고자 하는 창조세계 혹은 문화적 특징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둘째, 인간의 불순종과 죄의 결과로 인해 이러한 목적은 어떻게 왜곡되었는가?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가?

넷째, 학생들이 기독교적 삶의 방식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고 또 그것에 헌신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작성을 하다가 마지막 질문에서 멈추었습니다. 장애 학생들을 어떻게 헌신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책임지고 응답하는 제자로 구비시킬 수 있을까? 학부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지 않아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도,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는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수업에서는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었지만 모임을 통

해, 연수를 통해, 또한 기독교사대회를 통해 나의 생각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독교사모임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세계관과 기독교적 수업에 관한 책을 읽으며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신대 박영주 교수님을 학교로 초대해 강의를 듣고 함께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보았던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14년 1월 양재동 핏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기독교사 컨퍼런스에서 크리스천 오버만 박사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중학교 월드컵 프로젝트 수업을 준비하며 학생들이 하는 활동이 성경적 세계관의 '더 큰 그림'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월드컵이 하나님, 창조, 인간, 도덕률, 목적이라는 큰 그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기 원하시며 무엇을 성취하기 원하실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션 스쿨이나 모든 교사가 크리스천은 아니었고, 교육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교사들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 수업이라 목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했습니다.

우리는 월드컵을 통해 세계 민족의 다양함과 각 민족이 지닌 독특한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월드컵 경기를 보며 월드컵의 기원과 역사를 알 수 있고 축구 경기 규칙을 알며 규칙에 의해 경기가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진행하며 자국의 승리를 위해 선수들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월드컵에 출전한 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을 만들고 음식 나눔을 통해 나눔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다.

더 큰 그림을 생각하며 목적을 작성하고 수업을 진행했지만 학생들과 했던 활동들이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큰 그림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는지 논리적으로 진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무엇을 배웠고 성취했는지 명확하게 평가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동방학교 교사로 임용된 이후 듣고 공부했던 기독교적 가르침을 처음으로 시도해 보았다는 것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한 해 한 해 경력이 쌓이며 일을 처리하는 나만의 효과적인 방법도 생겼지만 자신만의 개성을 지닌 아이들을 가르치고 생활 지도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18년 차 중등 특수교사이지만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특수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적 수업을 위해서는 장애 학생들과 교육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나는 장애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였습니다. 2011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적용된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수업을 하며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장애 학생들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1년 미국특수아동협회에서는 특수교육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적 표준 수행 목록을 개발하였습니다. 그 목록은 지식과 기술 항목으로 나누어져 1) 특수교육의 기초, 2) 아동의 발달과 특성, 3) 개별 학습의 차이, 4) 교수 전략, 5) 학습환경 및 사회적 상호작용, 6) 언어, 7) 교수 계획, 8) 평가, 9) 전문성과 윤리적 실천, 10) 협동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특수교육 저널, 제4권 4호 '특수교육 교사의 수행능력에 대한 분석적 고찰', 이해균) 기독교특수교사로서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교사 경력 18년, 담임 경력은 올해로 4년. '교직의 꽃은 담임이다'라고 고백하는 선배 교사의 말처럼 담임으로 아이들을 만나게 되니 다른 고민들이 생겼습니다. 중학생이지만 학교에 등교하여 하교할 때까지 담임과 지내는 시간이 많은 아이들은 내 삶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함께 지내며 우리 아이들은 나의 언어, 나의 행동 하나 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점심 식사 후에 책상 앞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데 교실 뒤에 있는 책꽂이에서 책을 꺼내려는 민이에게 '의자에 앉으면 책을 줄 거야하는 다른 친구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나는 민이가 스스로 일어나 책을

가지러 가는 것이 대견해 지켜보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친구는 책을 좋아하는 민이에게 내가 자리에 앉히기 위해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내 삶을 통해 배우는 아이들이 옆에 있기에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내가 생각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대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 특수교육은 외국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 중에 발전하였는데, 19세기 말 R. S. Hall에 의해 평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세워진 것처럼 한국의 근대 특수교육도 기독교 정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반 교육에서 기독교적 수업, 기독교적 생활지도를 이야기하고 함께하는 공동체들도 많이 있지만, 특수교육에서는 아직 소리가 작습니다. 기독교 정신에서 시작된 특수교육에도 그런 목소리가 커지며 많은 공동체들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보면 나는 내가 가르치는 장애 학생들이 '책임 있고 응답하는 제자'가 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해의 한계였습니다. 담임으로 만났던 우리 학생들은 책임 있고 응답하는 제자였습니다. 나의 모습과 우리가 처한 교육 환경, 부모님들의 양육 방식을 돌아보게 하였고 변화에 응답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특수교사가 되었지만 내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선생님,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 선생님, 나만의 보물을 발견하게 해 주신 선생님들을 기억하며 나도 2015년 우리 반 아이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황유정 1998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바로 동방학교에 들어와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